'원반'처럼 생긴 지구…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평평한 지구 학회(Flat Earth Society)' 에 소속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지구가 원반처럼 납작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3월에는 마이크 휴즈라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에서 사제 로켓을 타고 570m 상공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다.

■ '평평한 지구 학회' 회원 급속 증가

18일 '가디언' 지에 따르면 지구과학자들은 이 '평평한 지구 학회' 회원들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연례 컨퍼런스에 많은 수의 회원이 참석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처럼 빠르게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로 보고 있다.

최근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평한 지구학회' 에 가입한 30명의 회원들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한 남성 회원은 2년 전까지 이들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에 음모(conspiracy)가 게재돼 있으며 지구가 실제로는 원반처럼 생겼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텍사스 공과대학의 애슐리 랜드럼(Asheley Landrum) 교수는 "30명 가운데 평평한 지구 이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남성 회원도 유튜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돼 '평평한 지구 학회' 에 가입한 상태다.

■ 동영상 통한 불신감 조장

랜드럼 교수가 우려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다.

랜드럼 교수는 " '지구가 평평하다' 는 주장이 일시적인 소동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과학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해 향후 발표되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심을 품게 하고, 향후 과학 발전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21세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유튜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튜브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년)는 개기월식을 보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다. 이후 그리스 천문학자 에라토스테네스(BC 273~192)는 북회귀선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두 곳에서 거리를 측량해 둥근 지구 둘레의 길이 4만6,250km를 측정했다. 실제 지구 둘레 길이인 4만km와 오차가 있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 최초의 사례였다.

근대에 들어서는 마젤란이 세계 일주에 성공함으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다.

20세기 들어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대기권 밖을 비행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지금은 수많은 인공위성 사진으로 둥그런 지구의 모습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